산위에마을교회 사역 리포트

안녕하세요, 산위에마을교회 김광운 목사입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헌금과 기도가 단비와도 같이 저희 교회에 얼마나 귀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Joshua J & Sunnyo Buck Mission Fund을 이전보다 더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다음세대 하나님의 종들이 귀 제단을 통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산위에마을교회는 지난 7월 매일찬양예배(Daily worship service)를 시작으로 9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새벽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드리는 찬양예배는 저희 교회의 척추와도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집 리빙룸인 예배의 공간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으며

매일 드리는 새벽예배 또한 매일매일 예배를 시작하기만 하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 예배로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생활비를 함께 충당해야 했기에 지난 9월 초부터 제가 핸디맨 사업을 혼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보면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눈썰미와 손재주를 주님께서 주셨지만 그래도 처음하는 사업인지라 걱정을 했지만 렌트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각종 유틸리티와 크레딧카드, 학자금 융자 빚 등을 갚을 수 있는 around $4500 정도의 금액을 채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렌트비용이 모자라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충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지만 일을 하는동안 몸도 피곤하고 제가 만난 이 지역의 고객들의 대부분이 무슬렘과 힌두들이었기에 그들로 부터 받는 영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거의 두달여 기간동안 제 개인적인 기도시간을 놓쳐 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동안 제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 일을 하려고 이 곳에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엄중한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주 한주동안 캔사스시티 국제기도의집에서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난 뒤 현재까지 40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희가정을 산위에마을교회로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11월 초에 지불되어져야 할 렌트를 주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미국 목사님께서 잘못 전화를 걸었다며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래도 서로 오랫만이라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약 15분간의 대화 뒤에 갑자기 본인이 일단 one time offering을 하시고 싶다며 $500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저와 두번 정도 만났던 한 청년이 갑자기 메세지로 연락이 와서 한살된 아이의 교육과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중보를 부탁한다며 이번에 받은 보너스의 십일조를 산위에마을교회에 헌금하고 싶다며 $2000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정확하게 11월 한달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혼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계속해서 Thanks Giving Friday까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할 점은 다름아닌 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을 주셨던 40일 금식에 순종하지 않고 먼저 제 경험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틀린것이 아니지만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할 때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왠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더 회복되어야 할 기도의 분량과 퀄리티를 주시고 싶으셔서 그것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필요에 있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11월 12일 현재까지 온전히 공급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더디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기도하는 중에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 상황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 그들과 실제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바빠서 미뤄왔던 남침례교단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11월 13일 부터 남침례교단 텍사스지부 아시아부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김형민 박사님이 추천하신 달라스 북서쪽 플라워마운드에 위치한 The Viilage Church에 출석하여 그들과 함께 저희 교회의 비젼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저희가 필요한 Sending church가 되어 줄 수 있는지 의논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지금까지 두달 정도 주일예배를 참석한 Gateway Church에 그들만의 church planting ministry가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심코 예배를 참석한 Gateway Church의 예배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건강한 성령님과의 동행하는 가르침과 무너진 다윗의 장막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전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가능하다면 그들과 하나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침례교단에 가입하여 독단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것도 감사하지만 저희 산위에마을교회와 동일하게 성경에 기초한 성령론의 신앙관점을 가진 달라스지역 메가쳐치인 Gateway Church에 뿌리를 두고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The Village Church의 신앙색을 좀 지켜보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아내 양은아 전도사는 산위에마을교회 비젼중 하나인 교육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위에마을교회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교육’이 하나의 말씀을 따라 하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기에 홈스쿨 또는 교회스쿨에 대한 비젼이 필수조건으로 삼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아내 양은아 전도사는 아이들을 킨더가튼부터 계속해서 풀타임 홈스쿨 선생님으로 사역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2023 학기에는 홈스쿨 코압의 선생님으로 지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산위에마을교회 교회스쿨을 함께 기도하며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은아 전도사의 간증들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역사와 세계사를 홈스쿨 커리큘럼으로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미국과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적인 관점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축복인지 새삼 느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 가르치면서 미국을 세우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이 땅을 위해 그리고 세계를 만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점을 이야기 했습니다. 산위에마을교회를 통해서 많은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0일 금식을 시작한 10월 17일부터 온라인 사역을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사역을 몇달 해보니 왠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마음보다 왠지 유투버가 된 느낌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투브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 또한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지만 이 곳에 저희가 만나 기도로 섬겨야 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겠다는 마음으로 온라인 사역을 지금까지 4주째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11월 14일 부터 매일찬양예배를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잠시 금식으로 대체되었던 매일찬양예배가 다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들을 산위에마을교회에 보내시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금식중이어서 충분한 에너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어 당신의 임재로 직접 예배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2022년 산위에마을교회와 함께해 주신 Joshua J & Sunnyo Buck Mission Fund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2일

김광운 목사, 양은아 전도사 드림